15차시

영국박물관에서 배우는 협상스킬

학습 내용

1. 남의 보물로 생색내는 사람들?
2. 영국박물관의 진짜 전시품은 따로 있었다
3. 타협과 협상으로 일궈낸 대영제국의 힘
4. 협상력 :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힘

1. 남의 보물로 생색내는 사람들

- 런던에 있는 영국박물관은 한 개인이 시작했지만, 지금은 영국은 물론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대형 전시시설로 성장했다.
- 특히, ‘해가지지 않는 나라’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던 과거 영국 전성기 때에 세계 각국의 식민지로부터 거둬들인 미술품들과 유물들은 그 수적으로도 막대하지만 컬렉션 하나하나가 **인류의 귀한 문화유산**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것들이 많다.

2. 영국박물관의 진짜 전시품은 따로 있었다

- 영국박물관과 영국인, 그들이 자신들의 것도 아닌 미술품과 유물 등을 가지고 지금과 같은 위대한 박물관을 만들어서 유지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그 중에서도 그들의 **탁월한 협상력과 토론 능력**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힘들다.

3. 타협과 협상으로 일궈낸 대영제국의 힘

- 영국이 유럽에서도 변방에 속하는 지리적 위치와 척박한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세계의 중심 국가로써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섬나라 특유의 원양 항해 능력과 그를 기반으로 한 강한 해군력 등이 있었지만, 그보다 더 강한 그들의 힘은 **타협과 협상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능력**에 있었다.
- **영국인들은 의회주의를 창조해서 잘 유지해 오고 있는 민족답게 원만한 토론과 협상을 잘 하는 것으로 유명**하다. 그런, 그들의 모습은 단 시일 내에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, 오랜 시간을 거쳐오며 많은 노력과 정책, 제도, 시스템적인 장치들을 개발, 적용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.

4. 협상력 :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힘

- 많은 사람들이 기업경영은 경쟁자와의 승부를 통해 승자가 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, 실제로는 기업경영은 **동료는 물론 술한 경쟁자와도 때로는 타협을 하고 또 때로는 협상을 통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지켜나가는 활동이 더 큰 성과를 가져다 주는** 경우가 대부분이다.